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자기보고식 측정에 미치는 영향*

권희경** · 이현주***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자기보고식 측정(자기보고된 학업성취의 정확도, 응답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초6, 중3, 고2 학생 10,19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학급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학생의 비율이 감소하며, 남학생 중에서, 특별시(초등학생)와 광역시(중학생)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둘째, 자기보고된 학업성취의 정확도 측정을 위하여 실제 학업역량과 자기보고된 학업역량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생, 남학생, 광역시와 읍면지역 학생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집단이 실제보다 자신의 학업역량을 과장해서 보고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응답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처리능력, 지구공동체의식, 예술활동에 대한 동일 문항내용의 긍정 진술과 부정진술에 대한 응답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학생들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낮은 학생들에 비하여 모든 영역에서 부정문항보다 긍정문항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비일관적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예술활동을 제외한 지식정보처리능력과 지구공동체의식에서 부정문항보다 긍정문항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자기보고식 측정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성별 차이에 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서 발달적 차이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자기보고식 측정의 정확도와 일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주제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자기보고식 측정, 인구학적 특성, 자기보고식 측정 정확성, 자기보고 응답 일관성

* 본 논문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2018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발전시킨 결과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분석연구실 부연구위원, 제1저자, hkwon14@kedi.re.kr

*** 명지대학교 교직과 교수, 교신저자, hjlee613@mju.ac.kr

I .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인식하거나, 타인에게 인식되기를 원하는 개인의 욕구 또는 성향을 의미한다(Stöber, 2001). 이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실제와 무관하게 자신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Paulhus, 1984).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은 현재 상태의 자신에 대한 몰이해 또는 강한 부정(否定)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까닭에 학계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에 관심을 보여 왔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된다. 즉,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행동 또는 특성(예, 나는 언제나 합리적으로 사고한다)에 극단적으로 긍정적 응답(예, 매우 그렇다)을 하는 사람’, 또는 ‘실제 누구에게나 흔히 발생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또는 특성(예, 나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에 극단적으로 부정적 응답(예, 전혀 그렇지 않다)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Paulhus, 1984; Stöber, 2001).

이와 같이 정의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 등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Booth-Kewley, Larson & Miyoshi, 2007; Furnham, Petrides & Spencer-Bowdage, 2002).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은 창의성과 같은 능력 요인(McKibben & Silvia, 2017 등), 화(anger)와 같은 정서적 특성(Bartz, Blume & Rose, 1996 등), 그리고 인터넷 게임 시간, 학교폭력 연루 경험, 식습관 등의 행동(조민규, 류성진, 2016; 최문영, 이동형, 2015; Herbert et al., 1997 등)에 관한 자기보고식 응답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과학 영역에서 흔히 활용되는 자기보고식 측정 결과의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의 특성과 아울러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자기보고식 측정에 대한 영향의 탐색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령, 성별, 지역규모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령·성별 등에 따라 사회적 역할 기대 또는 사회적 인정 욕구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행동 양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것이 각각이 받는 사회적 요구 충족에 대한 심리적 압력의 크기를 달리 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존중 또는 인정의 차이가 자신의 바람직한 정도를 가늠하는 성향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에 따라 사회화 정도와 방식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속 가정의 SES가 높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수용감 또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SES가 낮은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요구(예, 성적)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부담을 가지며, 이러한 부담은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규모(예, 광역시 vs. 읍면지역)는 일정 정도 SES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역규모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연령, 성별, 지역규모를 포함하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청소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자기보고식 측정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보고식 측정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두 가지 척도(indicator)를 활용하였다. 하나는 자기보고된 학업성취도와 검사를 통해 측정된 학업성취도의 차이 값이다. 해당 절대값의 크기가 클수록 자기보고된 학업성취도의 정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Dunlosky, Rawson & Middleton, 2005). 다른 하나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긍정적 진술(positive items)의 문항과 부정적 진술(negative items)의 문항에 대한 응답의 차이이다. 만약 이상적인 경우라면, 5점 척도를 가정할 때, ‘나는 예술을 좋아한다’와 같은 문항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 피험자는 ‘나는 예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야 한다. 그러나 두 진술에서의 예술에 대한 선호의 사회적 바람직성 정도가 달리 인식된다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두 진술에 대해 다른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낮은 사람의 응답은 진술 방식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진술 문항에 대한 응답과 부정적 진술 문항에 대한 응답의 역코딩 결과 차이를 자기보고식 측정 결과의 일관성의 척도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척도를 종속변수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독립변수로, 기타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자기보고식 측정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개념 및 측정도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스스로를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덕목을 갖춘 존재로 인식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존재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Rubin & Babbie, 2016). 따라서 실제의 자신(actual self)과 인식하거나 또는 보고되는(self-perceived 또는 self-reported self) 자신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고자 하는 경향성으로서, 실제의 자신에 비해 인식 또는 보고되는 자신이 긍정적인 정도를 의미한다(Paulhus, 1984).

심리학 분야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관한 연구들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가진 사람들에 관심을 보여 왔으며, 널리 활용되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행동 또는 특성(예, 나는 언제나 합리적으로 사고한다)에 관한 진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할수록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실제 누구에게나 흔히 발생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또는 특성(예, 나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에 관한 진술에 부정적 응답(예, 전혀 그렇지 않다)을 할수록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김용석, 전수미, 이평순, 2008;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 2015; Crowne & Marlowe, 1960; Paulhus, 1984; Stöber, 2001).

이와 같은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관찰한 측정도구는 크게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단일차원으로 정의하는 것과 두 개의 하위 차원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측정도구에는 Crowne와 Marlowe (1960)가 개발한 Marlow-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MCSDS)와 Stöber(2001)에

의해 개발된 Social Desirability Scale(SDS-17)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용석(2018)이 16개의 문항으로 타당화한 도구와, 배병훈 외(2015)가 9문항으로 단축한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도구는 Paulhus(1984)가 개발한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BIDR)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라(2005)가 20문항으로 한국어 버전 도구를 개발하였고, 이현주와 권희경(2020)이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8문항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2)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과 인구학적 특성의 관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Allaman, Joyce와 Crandall(1972)에서는 6~12세 아동들을 중간값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구분·비교한 결과, 저연령 아동들이 고연령에 비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았다. Dadds, Perrin와 Yule(1998)에서는 7~10세 아동 그룹과 14세 아동 그룹을 비교한 결과, 저연령 아이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Kalliopuska(1992)이 9~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낮아졌다. 3~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randall, Crandall과 Katkovsky(1965)와 3~8학년을 비교한 Lepper, Corpus와 Iyengar(2005)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성장기의 청소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성인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아지는 패턴이 나타난다. Mwamwenda(1995)에서는 평균 연령 약 20세의 청소년에 비하여 20대 후반의 성인 집단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낮았으나, 다수의 연구가 청년에서 중년을 거쳐 노년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Erskine et al., 2007; Kozma & Stones, 1988; Ray, 1988; Stöber, 2001; Thomsen et al., 2005). Ones와 Viswesvaran(1998)에서 1974년~1995년 사이에 수행된 19개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생애주기를 거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은 U자 형태를 거치며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상대적으로 극단 응답(예, 매우 그렇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을 하는 경향성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U자형의 변화는 아동기와 노년기에 상대적으로 극단적 응답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신학경, 손원숙, 2014; Austin et al., 2006)와도 일관된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낮아지는 것은 메타인지 및 자아개념의 발달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어린 아동의 경우 메타인지의 미(未)발달과 사회적 경험 부족으로 높은 자아개념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를 상당 수준 이상으로 우수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자아개념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적 비교 경험이 축적되고, 자아성찰의 기회가 빈번해짐에 따라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만약,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향이 존재한다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한편, 청년기에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던 개인도 중년과 장년기를 거치면서 기득권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율을 긍정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성이 성인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증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한편, 성별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과의 관계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일부 연구에서는 10세 미만의 경우, 여아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남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지만, 그 이후 연령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된다(강현경, 박영신, 2014; Allaman, Joyce & Crandall, 1972; Dadds, Perrin & Yule, 1998). 여성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Chung & Monroe, 2003; Crandall, Crandall & Katkovsky, 1965), 남자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설현수, 김성은, 김동민, 2005; Fraboni & Cooper, 1989; Ones & Viswesvaran, 1998),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김용석, 2018; Lewinsohn et al., 1998; Merydith, Prout & Blaha, 2003; Robinette, 1991) 등이 혼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사회적 배경, 대상 연령 등 각각의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집단의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나타내는 변인(예, 가계 수입, 부모 학력, 지역 규모)과 사회적 바람직성 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는 혼치 않다. Crandall, Crandall과 Katkovsky (1965)의 연구에서는 3~12학년 학생들 간에 SES와 사회적 바람직성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Miller 외(2014)의 연구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ES가 낮은 학생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지역규모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규모 별 사회경제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경우, 지역규모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차이 분석이 SES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간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의 비일관성과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별 또는 지역규모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관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립하는 가설이 가능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령기에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높은 자아개념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동일한 논리가 성별 및 지역규모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권희경 외, 2019; 박경호 외, 2019). 또한 SES 관련 요인과 자존감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Twenge & Campbell, 2002). 따라서 남학생일수록, 비교적 SES가 높은 대도시 거주 학생일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고, 그것이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성별과 SES 또는 지역규모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여학생 또는 소도시나 읍면지역 학생들에게서 낮은 수준의 자존감에 대한 방어기제로 다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3)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자기보고식 측정에의 영향

다수의 연구들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자기보고식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Huang, Liao & Chang, 1998; Nederhof, 1985). 즉,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나 긍정적 특성을 과장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부정적 감정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Adams et al., 2005; Babcock et al., 2004; Friedman et al., 2004; Straus, 2004; Tooze et al., 2004).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행동이나 특징일 경우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King & Brunner, 2000).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달리기 실력에 비해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보고식 조사에서 응답의 정확도가 낮을 가능성, 즉 자기보고된 실력과 실제 수준의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클수록 이러한 영역에서 자기보고된 실력과 실제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자기보고식 측정의 정확도를 저해하는 주요 변인임을 시사한다(King & Brunner, 2000).

한편, 자기보고식 측정에서 긍정적 진술 문항(예, 나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다)을 활용하는 경우와 부정적 진술 문항(예, 나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는다)을 활용하는 경우, 두 진술이 동일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험자의 응답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DiStefano & Motl, 2009; Merritt, 2012). 그 이유 중 하나는 동일한 의미의 진술이라도 진술방식에 따라 해당 진술이 내포하는 사회적 바람직성 정도가 차별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Kulas, Klahr & Knights, 2019). 예를 들어,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다’는 문항이 주어진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사람(예, 미취학 아동)에게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긍정응답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는다’는 부정적 진술 문항이 제시된 경우,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행위’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되어, 해당 문항에 대한 부정응답의 경향성은 높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동일한 의미의 긍정 또는 부정 진술 문항의 사회적 바람직성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두 진술 방식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즉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클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2018 KEDI 학생역량조사연구」의 참여자로 2017년 4월 기준(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우리나라 초6, 중3, 고2 학생 전체가 모집단으로 층화군집추출법을 적용하여, 218개 학교의 10,548명의 조사 자료 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195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화 가중치(standardized weight)를 모든 분석에 적용하였다.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한 학교급, 성별, 지역규모별 분석 대상의 분포를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학교급·성별·지역규모별 연구대상

		초		중		고	
		<i>n</i>	%	<i>n</i>	%	<i>n</i>	%
성별	남	1523	51.80	1689	52.40	2128	52.80
	여	1415	48.20	1534	47.60	1906	47.20
지역 규모	특별시	481	16.37	534	16.57	665	16.48
	광역시	705	24.00	795	24.67	1018	25.24
	중소도시	1271	43.26	1417	43.98	1770	43.88
	읍면지역	481	16.37	476	14.77	581	14.40
	전체	2938	100	3223	100	4034	100

주. 가중치 적용 후 해당 사례수가 반올림되어 중학교에서의 성별과 지역규모의 총합에서 차이가 나타남.

2. 연구도구

1)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척도는 Paulhus(1984)의 BIDR, 정보라(2005)의 한국어판 BIRD-7, Stöber(2001)의 Social Desirability Scale(SDS-17), 배병훈 외(2015)의 한국어판 SDS-9 문항을 참조하여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 청소년 대상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이현주, 권희경, 2020)를 사용하였다. 한국 청소년 대상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8개 문항(예시문항: ‘내가 한 결정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킨다’.)으로 구성되었고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답하도록 하였다. 문항내적합치도는 초등학교 집단($\alpha=.738$), 중학생 집단($\alpha=.786$), 고등학교 집단($\alpha=.759$)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집단은 8개 문항의 총점 32점 이상으로 대답한 학생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집단을 구분할 때 연구자들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절단(cut-off) 점수 혹은 피험자의 일정 비율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손은영, 차정은과 김아영(2007)의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균 3.30점 이상의 상위 15%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김용석(2018)은 5점 척도를 사용한 척도에서 4점 이상에 해당하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반응을 1점, ‘보통이다’의 3점 이하 반응은 0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박중규(2009)는 총 13점 중 11점 이상을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상위 집단을 구분하는 절단 점수로 사용하였다. 절단 점수를 사용할 경우 초·중·고등 학교급 간의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가 높은 집단의 비율을 비교하는 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절단점수를 적용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의 각 문항에서 평균적으로 ‘그렇다’의 4점 이상으로 총 32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낸 집단을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高) 집단으로 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의 15.07%, 중학생의 15.25%, 고등학교의 12.93%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도구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변별하기에 유용한 도구이나, 중간과 그 이하 수준을 변별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조기현, 2013). ‘나는 언제나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는 질문에 대한 ‘보통이다’와 같은 응답은 실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정도와 합리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편향을 구분없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도구의 측정 결과를 연속변수로 가정하고 활용하는 데는 제한이 수반된다.

2) 자기보고된 학업성취 정확성: 자기보고와 실제 학업역량 차이

하나의 문항(지난해 학생의 성적은 다음 중 어느 수준에 속했습니까?)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전반적인 학업성취 수준에 대해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의 9점 척도로 응답한 자기보고된 학업성취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와 비교하기 위한 실제 학업역량은 남궁지영 외(2015)가 개발한 언어적 사고 능력 검사와 수리적 사고 능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합산하여 활용하였다. 언어적 사고 능력 검사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를 측정하며, 수리적 사고 능력 검사는 수 추론 능력, 수리적 의사소통능력, 수리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한다. 각각의 검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검사의 난이도와 변별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남궁지영 외, 2015, pp.146~201 참조).

자기보고된 학업성취 응답의 9점 척도와 비교를 위하여 실제 학업역량은 각 학교 급별로 스테나인(stanine)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9등급 점수로 변환하였다. 스테나인 점수는 Z점수에 2를 곱하고 5를 더하여 환산한 표준점수로, 1점이 가장 낮은 점수이고 9점이 가장 높은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한 9점 척도의 성취도에서 실제 성취인 9등급 점수를 뺀 차이를 자기보고된 학업성취의 정확성 척도로 활용하였다. 해당 점수가 양수이면 과대평가, 음수이면 과소평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절대값이 클수록 정확도가 낮은 것, 즉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3) 자기보고식 응답 일관성: 긍정진술과 부정진술에 대한 응답 차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따른 자기보고식 응답에서의 일관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긍정진술과 부정진술에 대한 응답반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긍정적으로 서술된 문항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으로 서술된 문항을 부정진술 문항으로 제시하였고, 긍정진술 문항에 대한 응답값에서 부정진술 응답의 역코딩

한 값을 차감하였다. 예를 들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사람들 을 잘 알고 있다’라는 긍정진술에 ‘매우 그렇다’라는 5점 반응을 하는 경우, 문항 내용을 부정진술로 바꾸어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사람들을 잘 모른다’로 제시되는 경우 응답의 일관성이 높으면 이에 대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1점 반응을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진술에 대한 반응을 역채점하여 긍정진술과의 차이를 계산한 응답일관성 점수는 0점이 된다. 만약 부정진술에서 ‘그렇다’라는 4점 반응을 한다면, 응답일관성 점수는 3점이 된다. 즉, 응답 일관성 값이 양수이면, 부정진술을 부정하는 정도보다 긍정진술을 동의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바람직한 속성을 긍정적으로 기술한 내용에 동의하는 경향이 큰 것을 의미하고,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진술유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값이 음수이면 부정진술을 부정하는 정도보다 긍정진술을 동의하는 정도가 작은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특성일수록 그 기술이 긍정진술인 경우 기술내용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크게 인식되고 부정진술인 경우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되어, 동일 문항의 진술 유형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응답 일관성을 측정하는 문항 척도는 지식정보처리능력, 예술활동, 지구공동체의식의 긍정 진술과 이를 변경한 부정 진술, 각 14개의 문항이다. 모두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 척도의 문항수, 문항 예시, 문항내적합치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긍정진술에 해당하는 문항은 남궁지영 외(2015)가 KEDI 학생역량조사를 위해 개발한 문항이다. 교육학 박사 1인이 해당 문항을 동일한 의미를 갖는 부정적 진술로 변경하였으며, 교육학 박사 3명이 쌍을 이루는 두 진술의 의미의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였다.

표 2

자기보고식 응답 일관성 측정문항

역량	문항수	문항예시	문항내적합치도
지식정보 처리능력	5	긍정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예: 인터넷 사이트, 책 등)나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초($\alpha=.841$) 중($\alpha=.872$) 고($\alpha=.873$)
	5	부정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예: 인터넷 사이트, 책 등)나 사람들을 잘 모른다	초($\alpha=.832$) 중($\alpha=.874$) 고($\alpha=.884$)
예술활동	4	긍정 다른 사람과 예술(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초($\alpha=.932$) 중($\alpha=.940$) 고($\alpha=.935$)
	4	부정 다른 사람과 예술(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초($\alpha=.878$) 중($\alpha=.911$) 고($\alpha=.904$)
지구공동 체의식	5	긍정 남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도 심각한 문제이다	초($\alpha=.910$) 중($\alpha=.927$) 고($\alpha=.931$)
	5	부정 남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초($\alpha=.864$) 중($\alpha=.911$) 고($\alpha=.901$)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 자료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예술활동에 대한 응답 일관성과 학업성취 정확성 간의 상관을 제외하고 모든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표 3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연구변인	1	2.1	2.2	2.3	3
1.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1				
2. 응답 일관성					
2.1. 지식정보처리능력	.213**	1			
2.2. 예술활동	.110**	.180**	1		
2.3. 지구공동체의식	.130**	.231**	.198**	1	
3. 학업성취 정확성	.110**	.084**	.017	.034**	1
<i>M</i>	26,900	.868	-.376	-.408	.640
<i>SD</i>	4,412	4,025	2,788	3,121	2,179
<i>N</i>	10,189	10,195	10,195	10,195	10,195

** $p < .01$.

2.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高)집단 비율의 차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척도를 기준으로 32점 이상의 고(高)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비율에서 각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차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급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남학생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집단 비율이 여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그러나 성차에 대하여 각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에서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고집단의 비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나 중·고등학교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였고, 특히,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학교급에 따른 차이에서는 초·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고집단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4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고집단 비율 차이

학교급 및 성별 구분		사회적바람직성편향(32점기준)						X ²
		저(低) 집단		고(高) 집단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초등학교	남	1274	83.70	248	16.30	1522	100	3.799
	여	1220	86.30	194	13.70	1414	100	
중학교	남	1372	81.20	317	18.80	1689	100	33.669***
	여	1359	88.60	175	11.40	1534	100	
고등학교	남	1762	82.80	366	17.20	2128	100	73.493***
	여	1751	91.90	155	8.10	1906	100	
성별	남	4408	82.55	932	17.45	5340	100	91.523***
	여	4330	89.19	525	10.81	4855	100	
학교급	초	2494	84.90	442	15.10	2936	100	10.026**
	중	2731	84.70	492	15.30	3223	100	
	고	3513	87.10	521	12.90	4034	100	
전체		8738	85.70	1457	14.30	10195	100	

** $p < .01$, *** $p < .001$.

2) 학교급과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

초·중·고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규모별 차이를 살펴보면, 광역시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고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특별시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고집단 비율이 높으나, 중학교에서는 광역시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고집단 비율이 높고, 고등학교에서 지역규모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참조).

표 5

학교급과 지역규모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고집단 비율 차이

학교급 및 지역규모 구분		사회적바람직성편향(32점기준)						X ²
		저(低) 집단		고(高)집단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초등학교	특별시	386	80.20	95	19.80	481	100	12.624**
	광역시	597	84.60	109	15.40	706	100	
	중소도시	1105	87.00	165	13.00	1270	100	
	읍면지역	407	84.60	74	15.40	481	100	
중학교	특별시	472	88.40	62	11.60	534	100	17.328**
	광역시	640	80.50	155	19.50	795	100	
	중소도시	1212	85.50	205	14.50	1417	100	
	읍면지역	406	85.30	70	14.70	476	100	
고등학교	특별시	582	87.50	83	12.50	665	100	4.562
	광역시	867	85.20	151	14.80	1018	100	
	중소도시	1552	87.70	218	12.30	1770	100	
	읍면지역	512	88.12	69	11.88	581	100	
전체	특별시	1440	85.70	240	14.30	1680	100	14.283**
	광역시	2104	83.50	415	16.50	2519	100	
	중소도시	3869	86.80	589	13.20	4458	100	
	읍면지역	1325	86.20	213	13.80	1538	100	

** $p < .01$.

3.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자기보고식 측정에 대한 영향

1) 자기보고된 학업성취의 정확성

자기보고된 학업성취와 실제 학업역량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1과 모형2의 설명량 증가는 유의하였다(표 6 참조). 이때, 모형1에서는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 후, 모형2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집단을 더미 코딩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를 0, 나머지 학교급은 1로, 특별시의 경우를 0, 다른 지역규모는 1, 여학생을 0, 남학생을 1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점수가 32점 미만인 집단은 0으로, 32점 이상의 고집단을 1로 입력하였다.

전체적으로 자기보고된 학업성취와 실제 학업역량 차이는 양수로 나타나 학생들은 실제 학업역량에 비하여 높은 학업성취를 보고하였다(표 7 참조). 초등학교 대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표준화 계수는 음수이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그 절댓값은 더 크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학업성취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별시에 비하여 광역시와 읍면 소재의 학교에서는 실제 학업역량에 비하여 과장되게 자신의 학업성취를 보고하는 경향이 더욱 컸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집단은 저집단에 비하여 실제 학업역량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를 보고하는 경향이 컸다.

표 6

자기보고된 학업성취의 정확성에 대한 모형의 설명량

모형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ΔR^2	ΔF	df	dL
1	0.280	0.079	0.078	2.092	0.079	144.675***	6	10188
2	0.289	0.083	0.083	2.086	0.005	52.453***	1	10187

*** $p < .001$.

표 7

자기보고된 학업성취 정확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β	
1	상수	1.406	.064	22.052***
	중학교(초등학교 대비)	-.893	.053	-16.737***
	고등학교(초등학교 대비)	-1.226	.051	-24.162***
	광역시(특별시 대비)	.194	.066	2.940**
	중소도시(특별시 대비)	.101	.060	1.691
	읍면(특별시 대비)	.787	.074	10.666***
	남학생(여학생 대비)	.438	.041	10.559***
	사회적바람직성 편향 高 집단	.430	.059	7.242***
2	상수	1.327	.065	20.571***
	중학교(초등학교 대비)	-.894	.053	-16.791***
	고등학교(초등학교 대비)	-1.217	.051	-24.024***
	광역시(특별시 대비)	.184	.066	2.803**
	중소도시(특별시 대비)	.106	.060	1.772
	읍면(특별시 대비)	.790	.074	10.723***
	남학생(여학생 대비)	.409	.042	9.849***
	사회적바람직성 편향 高 집단	.430	.059	7.242***

** $p < .01$, *** $p < .001$.

2) 응답의 일관성: 긍정 진술과 부정 진술에 대한 응답간의 차이

응답의 일관성은 긍정진술에 대한 응답값에서 역코딩한 부정진술 응답값을 뺀 것으로 산출하였다. 응답의 일관성을 지식정보처리능력, 지구공동체의식, 예술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일관성에 대한 학교급, 지역규모, 성별,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집단 여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 지식정보처리능력에 대한 응답 일관성

회귀분석 결과 인구학적 변인만을 투입한 1단계의 모형1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집단 여부를 투입한 2단계의 모형2 모두 설명량 R^2 의 변화량이 유의하였다(표 8 참조).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집단 여부를 추가 투입한 2단계의 설명량 증가가 1단계보다 높아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응답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이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보다 큰 것을 나타내었다.

표 8

응답 일관성(지식정보처리능력)에 대한 설명량

모형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ΔR^2	ΔF	df	df
1	.116	.013	.013	.800	.013	23.221***	6	10187
2	.171	.029	.029	.793	.016	166.191***	1	10186

*** $p < .001$.

구체적으로 표 9에서와 같이 상수값이 양수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지식정보처리능력에 대한 부정적 진술보다 긍정적 진술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서 다른 인구학적 변인보다도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집단 여부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식정보처리능력에 대한 응답의 일관성에 있어서 학교급과 지역규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만 영향을 미쳤다. 즉,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신의 바람직한 특성에 대한 부정적 진술을 동의하지 않는 정도보다 긍정적 진술을 동의하는 정도가 큰 경향을 나타내어, 응답의 일관성이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응답 일관성(지식정보처리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B</i>	<i>SE</i>	β		
1	상수	.279	.024			11.446***
	중학교(초등학교 대비)	-.010	.020	-0.006		-0.506
	고등학교(초등학교 대비)	-.011	.019	-0.007		-0.585
	광역시(특별시 대비)	-.015	.025	-0.008		-0.599
	중소도시(특별시 대비)	-.038	.023	-0.023		-1.647
	읍면(특별시 대비)	.047	.028	0.021		1.665
	남학생(여학생 대비)	.177	.016	0.110		11.188***
2	상수	.226	.025			9.202***
	중학교(초등학교 대비)	-.011	.020	-0.006		-0.531
	고등학교(초등학교 대비)	-.005	.019	-0.003		-0.252
	광역시(특별시 대비)	-.021	.025	-0.012		-0.860
	중소도시(특별시 대비)	-.035	.023	-0.021		-1.523
	읍면(특별시 대비)	.049	.028	0.022		1.734
	남학생(여학생 대비)	.158	.016	0.098		10.002***
	사회적바람직성 편향 高 집단	.291	.023	0.127		12.892***

*** $p < .001$.

(2) 지구공동체의식에 대한 응답 일관성

회귀분석 결과 모형1과 모형2 모두 설명량 R^2 의 변화량이 유의하였고, 지식정보처리 능력에 대한 응답일관성 결과와도 같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집단 여부를 추가 투입한 2단계의 설명량 증가가 1단계의 설명량 보다 많아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응답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이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상수값이 음수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지구공동체의식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을 동의하는 정도보다 부정적 진술을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더 큰 경향을 나타내었다(표 11 참조).

한편, 지식정보처리능력에 대한 응답일관성과 마찬가지로, 다른 인구학적 변인 요소 보다도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집단 여부는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 바람직

성 편향 고집단은 저집단에 비하여 부정적 진술의 비중의 정도보다 긍정적 진술에서 동의하는 정도가 큰 경향을 나타내어, 응답의 일관성이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규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초등학생과 비교하여 고등학생이, 여학생에 비교하여 남학생이 긍정적 진술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10

응답 일관성(지구공동체의식)에 대한 설명량

모형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ΔR^2	ΔF	df	dL
1	.055	.003	.002	.623	.003	5.207***	6	10187
2	.096	.009	.009	.621	.006	63.188***	1	10186

*** $p < .001$.

표 11

응답 일관성(지구공동체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β	t
1	상수	-.043	.019		-2.254*
	중학교(초등학교 대비)	-.007	.016	-.005	-0.450
	고등학교(초등학교 대비)	.030	.015	.024	1.987*
	광역시(특별시 대비)	-.034	.020	-.024	-1.736
	중소도시(특별시 대비)	-.034	.018	-.027	-1.896
	읍면(특별시 대비)	-.003	.022	-.002	-0.122
	남학생(여학생 대비)	-.052	.012	-.042	-4.208***
2	상수	-.069	.019		-3.568***
	중학교(초등학교 대비)	-.007	.016	-.005	-0.465
	고등학교(초등학교 대비)	.033	.015	.026	2.201*
	광역시(특별시 대비)	-.037	.020	-.026	-1.899
	중소도시(특별시 대비)	-.032	.018	-.026	-1.817
	읍면(특별시 대비)	-.002	.022	-.001	-0.089
	남학생(여학생 대비)	.043	.012	.034	3.446**
사회적바람직성 편향 고집단		.141	.018	.079	7.949***

* $p < .05$, ** $p < .01$, *** $p < .001$.

(3) 예술활동에 대한 응답 일관성

회귀분석 결과 모형1의 설명량은 유의하지 않았고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고집단 여부를 추가 투입한 2단계의 설명량 증가는 유의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응답 일관성(예술활동)에 대한 설명량

모형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ΔR^2	ΔF	df	dl
1	0.026	0.001	0.000	0.695	0.001	1.105	6	10187
2	0.063	0.004	0.003	0.694	0.003	33.700***	1	10186

*** $p < .001$.

표 13

응답 일관성(예술활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SE	β		
상수	-.055	.021			-2.604**
중학교(초등학교 대비)	-.023	.018	-.016		-1.324
고등학교(초등학교 대비)	-.007	.017	-.005		-.445
1 광역시(특별시 대비)	-.033	.022	-.021		-1.515
중소도시(특별시 대비)	-.042	.020	-.030		-2.135*
읍면(특별시 대비)	-.028	.025	-.014		-1.133
여학생(남학생 대비)	.005	.014	.004		.380
상수	-.076	.021			-3.549***
중학교(초등학교 대비)	-.024	.018	-.016		-1.336
고등학교(초등학교 대비)	-.005	.017	-.003		-.293
2 광역시(특별시 대비)	-.036	.022	-.022		-1.632
중소도시(특별시 대비)	-.041	.020	-.029		-2.076*
읍면(특별시 대비)	-.027	.024	-.014		-1.110
남학생(여학생 대비)	-.013	.014	-.009		-.930
사회적바람직성 편향 고집단	.115	.020	.058		5.805***

* $p < .05$, ** $p < .01$, *** $p < .001$.

상수값이 음수로 나타나 지구공동체의식과 마찬가지로 예술활동에 대한 긍정적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보다 부정적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더 큰 경향을 나타내었고, 특별시에 대비하여 중소도시 학생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표 13 참조). 그러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집단은 지식정보처리능력과 지구공동체의식의 응답일관성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진술의 비동의 정도보다 긍정적 진술에서 동의하는 정도가 큰 경향을 나타내어, 응답의 일관성이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학생의 비율이 감소하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중, 읍면지역이나 중소도시에 비해 특별시(초등학생)와 광역시(중학생)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집단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둘째, 초등학생, 남학생, 광역시와 읍면지역 학생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집단이 실제보다 자신의 학업역량을 과장해서 보고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예술활동을 제외한 지식정보처리능력과 지구공동체의식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에 비하여 모든 영역에서 부정문항보다 긍정문항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예술활동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에 비해 중소도시 학생들이 부정문항에 대하여 더욱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눈에 띄게 높은 학생들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일정 정도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히 높은 학생들의 경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또는 실제와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과도하게 높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록 32점(40점 만점)이라는 다소 자의적 기준에 의해 집단을 구분하는 한계가 존재하나, 본 연구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초등~고등학생들 중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특별히 높은 학생들의 분포와 자기보고식 측정에 있어서의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학생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메타인지의 발달과 사회적 경험 축적으로 인한 자기인식의 객관성, 사회인식의 비판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초등학생들은 자신과 사회에 대해 무비판적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고등학생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자라는 반면, 아직 한 사회의 기득권 계층으로서 사회의 기준과 규범을 내면화하는 성인이 되기 이전 시기이므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중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고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그러나 Bleidorn 등(2016)이 수행한 전 세계 48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국가에 관계없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지난 4년 간 수행된 KEDI 학생역량조사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예, 나는 내가 무엇이든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권희경 외, 2018, 2019, 김혜지 외, 2017; 남궁지영 외, 2016). 아직 이러한 현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연구에서 나타난 남학생의 높은 수준의 자존감과 긍정적 자기인식이 본 연구에서 확인된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자존감 또는 긍정적 자기인식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측정 결과에는 이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별 간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존감, 방어기제 등에 관한 정교하게 계획된 다수의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적어도 중학생까지는 거주하는 지역규모가 자기이해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린 나이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객관화 수준이 낮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약하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즉, 비교적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 학생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결과는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

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지역규모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차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SES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간의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SES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표적인 SES 척도인 부모학력, 가정 수입 등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기대한 대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성취를 과대평가하였다. 학년이 높을수록, 여학생일수록 과대평가의 경향성이 낮은 것은 앞에서 논의한 인구학적 변인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관계에 관한 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예상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보고식 측정에 활용된 긍정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 문항에 차별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통제한 다음에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은 긍정진술(부정진술 대비)에서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비록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몇 가지 결과(예, 지역규모와 학업성취 자기보고 정확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나, 본 데이터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자기보고식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측정에 있어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과 아울러 성별 간 응답의 차이를 해석할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응답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이 중 예술 활동에 비해 지식정보처리능력과 지구공동체의식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즉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지식정보처리능력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특히 강조되는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知的) 능력이다. 또한 유교적 전통의 집단주의적 성격을 갖는 우리 사회에서는 구성원에게 공동체의식과 같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크다. 반면, 우리 사회는 상대적으로 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학생들은 예술활동에 비해 지식정보처리능력과 지구공동체의식 영역의 질문에 비일관적으로 답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이러한 이론적 기대와 일관되게, 해당 두 영역에서 응답의 일관성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가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른 영역(예, 수학 성적, 외모 등)의 다양한 질

문들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학생 중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높은 학생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규모를 비롯한 SES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관계는 어떠한가? 남녀 학생들의 자기보고식 측정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어떤 영역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더 혹은 덜 민감하게 작용하는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전반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분포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자기보고식 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과 함께, 이와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 교육통계연보**.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강현경, 박영신 (2014).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 성별, 의도적 통제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1), 1-18.
- 권희경, 김주아, 박경호, 안해정, 최인희 (2019). **2019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권희경, 이현주, 남궁지영, 박경호, 최원석, 김혜지 (2018). **2018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혜지, 남궁지영, 김주아, 박성호, 김혜자, 김훈호 (2017). **2017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김용석 (2018).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24)의 타당화 및 적용. **사회복지연구**, 49(3), 87-114. doi:10.16999/kasws.2018.49.3.87
- 김용석, 전수미, 이평순 (2008). 한국어판 사회적 바람직성척도(SDS-17)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사회복지연구**, 38(3), 5-32. doi:10.16999/kasws.2008..38.5
- 남궁지영, 김양분, 박경호, 정동철, 박현정 (2015).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조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남궁지영, 김양분, 박경호, 최인희, 박현정, 정승은 (2016). **2016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경호, 권희경, 김정아, 백승주, 최인희, 송승원, 이병석 (2019). **2019 한국교육종단연구: 초기 성인기 생활과 성과(IV)**.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중규 (2009). 청소년 대상 단축형 13 문항 Marlowe-Crowne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요인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429-439. doi:10.16983/kjsp.2009.6.3.429
-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 (2015). Rasch 모형을 이용한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SDS-9)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6(6), 177-197. doi:10.15703/kjc.16.6.201512.177
- 설현수, 김성은, 김동민 (2005). Rasch 모형을 이용한 Marlowe-Crowne 의 사회적 정향성 척도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8, 101-123.
- 손은영, 차정은, 김아영 (2007). 사회적 바람직성 상, 하위 집단 간 성격검사의 구인동등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71-87. doi: 10.21193/kjspp.2007.21.2.006

- 신학경, 손원숙 (2014). 혼합라쉬모형을 적용한 TIMSS 2011 수학흥미 척도의 응답양식 탐색. **교육평가연구**, 27, 429-448.
- 이현주, 권희경 (2020). 한국 청소년 대상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34(2), 447-470. doi:10.17286/KJEP.2020.34.2.10
- 정보라 (2005). **사회적 바람직성의 구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기현 (2013).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통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민규, 류성진 (2016).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지각 및 응답편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게임이용시간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6(4), 335-373. doi:10.16983/kjsp.2015.12.2.203
- 최문영, 이동형 (2015). 괴롭힘 참여역할 자기보고의 잠재적 편향요인: 개인특성 및 평가조건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2), 203-224. doi:10.16983/kjsp.2015.12.2.203
- Adams, S., Matthews, C., Ebbeling, C., Moore, C., Cunningham, J., Fulton J., & Herbert J. (2005). The effect of social desirability and social approval on self-reports of physical activit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61(4), 389-398. doi:10.1093/aje/kwi054
- Allaman, J. D., Joyce, C. S., & Crandall, V. C. (1972). The antecedents of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tendencies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Child Development*, 43(4)1135-1160. doi:10.2307/1127504
- Austin, E. J., Deary, I. J., & Egan, V. (2006). Individual differences in response scale use: Mixed Rasch modelling of responses to NEO-FFI it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6), 1235-1245. doi:10.1016/j.paid.2005.10.018
- Babcock, J., Costa, D., Green, C., & Eckhardt, C. (2004). What situations induce intimate partner violence? 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of the Proximal Antecedents to Violent Episodes (PAVE) sca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3), 433-442. doi:10.1037/0893-3200.18.3.433
- Bartz, A. E., Blume, N. E., & Rose, J. (1996). Gender differences in self-report measures of anger: The role of social desirability and negative affect.

-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1(5), 241-253.
- Bleidorn, W., Arslan, R. C., Denissen, J. J. A., Rentfrow, P. J., Gebauer, J. E., Potter, J., & Gosling, S. D. (2016).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A cross-cultural windo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1(3), 396-410. doi:10.1037/pspp0000078
- Booth-Kewley, S., Larson, G. E., & Miyoshi, D. K. (2007). Social desirability effects on computerized and paper-and-pencil questionnair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3(1), 463-477. doi:10.1016/j.chb.2004.10.020
- Chung, J., & Monroe, G. S. (2003). Exploring social desirability bias. *Journal of Business Ethics*, 44(4), 291-302.
- Crandall, V. C., Crandall, V. J., & Katkovsky, W. (1965). A children's social desirability questionnair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1), 27-36. doi:10.1037/h0020966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4), 349-354. doi:10.1037/h0047358
- DiStefano, C., & Motl, R. W. (2009). Personality correlates of method effects due to negatively worded items on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 309-313. doi:10.1016/j.paid.2008.10.020
- Dunlosky, J., Rawson, K. A., & Middleton, E. L. (2005). What constrains the accuracy of metacomprehension judgements? Testing the transfer-appropriate-monitoring and accessibility hypothese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2(4), 551-565. doi:10.1016/j.jml.2005.01.011
- Dadds, M. R., Perrin, S., & Yule, W. (1998). Social desirability and self-reported anxiety in children: An analysis of the RCMAS Lie Sca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4), 311-317. doi:10.1023/A:1022610702439
- Erskine, J. A. K., Kvavilashvili, L., Conway, M. A., & Myers, L. (2007). The effects of age on psychopathology, well-being and repressive coping. *Aging and Mental Health*, 11, 394-404. doi:10.1080/13607860600963737

- Fraboni, M., & Cooper, D. (1989). Further validation of three short forms of the Marlowe-Crowne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Psychological Reports*, 65(2), 595-600. doi:10.2466/pr0.1989.65.2.595
- Friedman, A., Terras, A., Zhu, W., & McCallum, J. (2004). Depression, negative self-image and suicidal attempts as effects of substance use and substance dependence. *Journal of Addictive Diseases*, 23(4), 55-71. doi:10.1300/j069v23n04_05
- Furnham, A., Petrides, K. V., & Spencer-Bowdage, S. (2002).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social desirability on the identification of repress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1), 119-130. doi:10.1016/s0191-8869(01)00139-8
- Hebert, J. R., Ma, Y., Clemow, L., Ockene, I. S., Saperia, G., Stanek III, E. J., & Ockene, J. K. (1997).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desirability and social approval bias in dietary self-report.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46(12), 1046-1055. doi:10.1093/oxfordjournals.aje.a009233
- Huang, C., Liao, H., & Chang, S. (1998). Social desirability and the Clinical Self-Report Inventory: Methodological reconsider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4), 517-528. doi:10.1002/(sici)1097-4679(199806)54:4<517::aid-jclp13>3.0.co;2-i
- Kalliopuska, M. (1992). Social desirability related to children's age, sex, and willingness to help. *Psychological Reports*, 70(2), 479-482. doi: doi.org/10.2466/pr0.1992.70.2.479
- King, M., & Bruner, G. (2000). Social desirability bias: a neglected aspect of validity testing. *Psychology and Marketing*, 17(2), 79-103. doi:10.1002/(sici)1520-6793(200002)17:2<79::aid-mar2>3.0.co;2-0
- Kozma, A., & Stones, M. J. (1988). Social desirability in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Age comparis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1), 1-14. doi: 10.1007/bf00384215
- Kulas, J. T., Klahr, R., & Knights, L. (2018). Confound it! Social desirability and the "reverse-scoring" method effec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5(6), 855-867. doi:10.1027/1015-5759/a000459

- Lepper, M. R., Corpus, J. H., & Iyengar, S. S. (2005).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in the classroom: Age differences and academic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2), 184-196. doi:10.1037/0022-0663.97.2.184
- Lewinsohn, P. M., Gotlib, I. H., Lewinsohn, M., Seeley, J. R., & Allen, N. B. (1998). Gender differences in anxiety disorders and anxiety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109-117. doi: 10.1037/0021-843x.107.1.109
- McKibben, W. B., & Silvia, P. J. (2017). Evaluating the distorting effects of inattentive responding and social desirability on self-report scales in creativity and the arts.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51*(1), 57-69. doi:doi.org/10.1002/jocb.86
- Merritt, S. M. (2012). The two-factor solution to Allen and Meyer's (1990) affective commitment scale: Effects of negatively worded item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7*, 421-436. doi:10.1007/s10869-011-9252-3
- Merydith, S. P., Prout, H. T., & Blaha, J. (2003). Social desirability and behavior rating scales: An exploratory study with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Psychology in the Schools, 40*(2), 225-235. doi:10.1002/pits.10077
- Miller, P. H., Baxter, S. D., Hitchcock, D. B., Royer, J. A., Smith, A. F., & Guinn, C. H. (2014). Test-retest reliability of a short form of the children's social desirability scale for nutrition and health-related research.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and Behavior, 46*(5), 423-428. doi:10.1016/j.jneb.2013.11.002
- Mwamwenda, T. S. (1995). Age differences in social desirability. *Psychological Reports, 76*(3), 825-826. doi:10.2466/pr0.1995.76.3.825
- Nederhof, A. (1985). Methods of coping with social desirability bias: a review.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3), 263-280. doi:10.1002/ejsp.2420150303
- Ones, D. S., & Viswesvaran, C. (1998). The effects of social desirability and faking

- on personality and integrity assessment for personnel selection. *Human Performance*, 11(2-3), 245-269. doi:10.1080/08959285.1998.9668033
- Paulhus, D. L. (1984). Two-component models of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3), 598-609. doi:10.1037/0022-3514.46.3.598
- Ray, J. J. (1988). Lie scales and the elderl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 417-418. doi:10.1016/0191-8869(88)90106-7
- Robinette, R. L.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lowe-Crowne form C and the validity scales of the MMPI.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7(3), 396-399. doi:10.1002/1097-4679(199105)47:3<396::aid-jclp2270470311>3.0.co;2-k
- Rubin, A., & Babbie, E. R. (2016). *Empowerment series: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Boston: Cengage Learning.
- Stöber, J. (2001).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 (SDS-17):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relationship with ag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3), 222-232. doi:doi.org/10.1027//1015-5759.17.3.222
- Straus, M.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doi:10.1177/1077801204265552
- Thomsen, D. K., Mehlsen, M. Y., Viidik, A., Sommerlund, B., & Zachariae, R. (2005).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negative affect—Is there a role for emotion reg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935-1945. doi:10.1016/j.paid.2004.12.001
- Tooze, J., Sabar, A., Thompson, F., Troiano, R., Schatzkin, A., & Kipnis, V. (2004). Psychosocial predictors of energy underreporting in a large doubly labelled water study.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79(5), 795-804. doi:10.1093/ajcn/79.5.795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2). Self-esteem and socioeconomic status: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1), 59-71. doi:10.1207/s15327957pspr0601_3

ABSTRACT

The effect of social desirability bias on the measurement of self-reported response

Kwon, Heekyung* · Lee, Hyunjoo**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desirability bias, the desire to appear socially desirable, on the measurement of self-reported responses of Korean student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d that : 1) the proportion of students with higher social desirability bias decreased as the grade went up, and the proportion of boys with higher social desirability bias was higher than that of girls in Seoul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etropolitan citi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2) Elementary school students, boys, students from metropolitan cities and townships, and groups with high social desirability bias tended to report their academic competencies as being more exaggerated than their actually competencies; 3) Regarding the self-reported global community and knowledge processing ability, there was a larger inconsistent tendency for male students and students with high social desirability bias to respond to positive statements in a more desirable way than to negative ones; 4) Regarding artistic activities, students with high social desirability bias gave rather inconsistent responses. These finding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social desirability bias affects the accuracy and consistency of self-reporting measurements, and suggests tha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nterpreting clear the gender differences in such self-reporting measurement results.

Key Words: social desirability bias, self-reporting measurem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uracy of self-reporting measurement

투고일: 2020. 9. 7, 심사일: 2020. 10. 28. 심사완료일: 2020. 11. 11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kwon14@kedi.re.kr

** Myongj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hilee613@mju.ac.kr